KBS 교향악단

KBS S.O. 831st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2026. 10. 30.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 02-6099-7400
F 02-6099-7416
H www.kbssymphony.org
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코른골트
E. W. Korngold

주제와 변주곡, 작품 42 07′
Theme and Variations, Op. 42

월튼
W. Walton

바이올린 협주곡 31′
Violin Concerto

I. Andante tranquillo
차분하고 평온하게
II. Presto capriccioso alla napolitana
매우 빠르고 변덕스럽게, 나폴리풍으로
III. Vivace
생기 있고 빠르게

인터미션 15′
Intermission

브람스
J. Brahms

피아노 사중주 제1번 g단조, 작품 25(쇤베르크 관현악 편곡) 43′
Piano Quartet No. 1 in g minor, Op. 25(Arr. Schönberg)

I. Allegro
빠르고 활기차게
II. Intermezzo: Allegro ma non troppo
간주곡: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III. Andante con moto
움직임을 지니고 조금 빠르게
IV. Rondo alla zingarese: Presto
집시풍의 론도: 매우 빠르게

✣ 총 소요시간: 100분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rco Borggreve

지휘 미하엘 잔데를링

미하엘 잔데를링은 2021년부터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브루크너, 말러, 슈트라우스와 같은 후기 낭만주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와 성공적인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루체른 심포니를 이끌고 아시아, 남미, 독일에서 투어를 진행했으며, 특히 빈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0번과 윌리엄 켄트리지의 애니메이션 <다른 세상을 믿다>를 결합한 공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잔데를링은 루체른 심포니와 다수의 음반을 발매했으며, 2023년 워너 클래식에서 출시된 브람스 교향곡 전집과 쇤베르크 편곡의 피아노 사중주곡이 호평받았다. 또한,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와 함께 녹음한 슈만 &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앨범 역시 음악적 깊이를 인정받았다.

그는 베를린 필하모닉,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NHK 교향악단, 빈 심포니,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드레스덴 필하모닉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그는 드레스덴 콘서트홀 및 국제 투어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었으며, 소니 클래시컬에서 발매한 베토벤 &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녹음이 이를 입증한다. 2011년에는 쾰른 오페라하우스에서 프로코피예프 <전쟁과 평화>를 지휘하여 '오페른벨트' 선정 올해의 지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잔데를링은 젊은 음악가 육성에도 힘쓰며,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정기적으로 협업하며, 2003~2013년에는 도이체 슈트라이커필하모니 상임지휘자로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에 앞장섰다.

Michael Sanderling

Conductor



바이올린 프랑크 페터 짐머만

프랑크 페터 짐머만은 탁월한 기교와 깊이 있는 음악성, 지적인 해석으로 국제 무대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온 바이올리니스트다. 40년 넘게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저명한 지휘자들과 협업하며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주요 공연장과 국제 음악축제에서 활발히 연주해왔다.

2025 / 26 시즌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악단과 협연한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홍콩의 주요 오케스트라와 중국 투어에 나서며, 피아니스트 드미트로 초니와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빈 등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바흐에서 리게티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BIS Records를 비롯해 Warner Classics, Sony Classical, Decca, ECM 등 주요 레이블을 통해 수많은 음반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야쿠프 흐루샤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와 스트라빈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했다.

현대음악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마그누스 린드베리, 마티아스 핀처, 브렛 딘, 오거스타 리드 토머스 등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세계 초연했다. 시에나 키지아나 음악원상, 라인란트 문화상, 뒤스부르크 음악상, 독일연방공화국 공로십자훈장 1급, 하나우시 파울 힌데미트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현재 뒤셀도르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예술재단의 지원으로 1711년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Lady Inchiquin’을 대여받아 연주하고 있다.

Frank Peter Zimmermann

Violin



1937년, 브람스를 특히 존경했던 쇤베르크는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제1번>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했다. 쇤베르크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연주하는 사중주곡을 대규모 관현악곡으로 확장하면서도 원곡의 구조와 개성을 충실하게 구현해 냈기에 이 곡은 브람스의 숨겨진 교향곡, 즉 '브람스 교향곡 제5번'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음악해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이 쇤베르크에 의해 재탄생한 브람스의 걸작을 선보인다. 잔데를링이 2023년에 발매한 브람스 교향곡 전집은 "균형 잡힌 해석과 현대적 감수성의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공연에서 그의 브람스 연주는 큰 기대를 모은다. 잔데를링은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제1번> 관현악 편곡 버전의 연주에 앞서 음악회 첫 곡으로 코른골트의 <주제와 변주곡>도 선보인다. 코른골트가 완성한 마지막 오리지널 작품으로 아일랜드 민요풍의 소박한 주제가 다채로운 변주를 거쳐 화려한 행진곡으로 발전하며, 이어 연주되는 월튼의 바이올린 협주곡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이번 공연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프랑크 페터 짐머만이 연주하는 월튼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낭만주의 전통에 현대적인 기교와 리듬의 유희가 가미된 독창적인 곡이다. 독일 바이올린 악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프랑크 페터 짐머만은 기교와 감성이 조화된 진지한 연주로 월튼 바이올린 협주곡의 정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코른골트 / 주제와 변주곡, 작품 42
E. W. Korngold / Theme and Variations, Op. 42

작곡 1953년
초연 1953년 11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편성 플루트 2, 오보에 1, 클라리넷 2, 바순 1, 호른 2, 트럼펫 2, 트롬본 2, 팀파니, 글로켄슈필, 심벌즈, 스네어드럼, 하프, 피아노, 현5부
연주시간 약 7분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브르노(현 체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빈으로 이주했다. 음악평론가 율리우스 코른골트의 아들로 일찍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열 살 무렵 작품을 접한 말러는 '천재'라 평했고, 그의 추천을 받아 첼린스키에게 작곡을 배웠다. 열다섯에 발표한 <신포니에타>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마저 감탄하게 했다. 후기 낭만주의 어법, 촘촘한 반음계 화성, 오페라적 호흡의 긴 선율은 일찍부터 음악의 중심을 이뤘다. 12음기법과 무조음악이 세를 넓히던 시기에도 조성과 선율을 지키며 후기낭만주의의 마지막 주자로 남았다.

1920년 오페라 <죽은 도시>의 대성공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만, 유대계였던 코른골트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1930~40년대 할리우드에 정착해 대규모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영화에 이식했고, <앤서니 애드버스>와 <로빈 후드의 모험>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다. 교향악적 영화음악의 기틀을 다진 성공은 한편 '영화음악 작곡가'라는 꼬리표도 남겼다. 종전 후 유럽 음악계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방가르드가 주류가 된 무대에서 짙은 서정과 후기낭만적 색채는 시대에 뒤처진 음악으로 비판받았다.

오늘 첫 곡으로 연주될 <주제와 변주곡 Op.42>는 코른골트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뒤 1953년 미국 학교 오케스트라 협회의 위촉으로 쓴 작품이다. 학생 연주자를 염두에 둔 만큼 구조와 화성은 비교적 간결하고 연주 시간도 7분 안팎이다. 그렇다고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단순한 것은 아니다. 팀파니, 심벌즈, 스네어드럼, 글로켄슈필에 하프와 피아노를 더해 짧은 시간 안에 풍성한 음향을 구현한다.

플루트가 홀로 제시하는 첫 주제에 코른골트는 '아일랜드 민요처럼(like an Irish folk tune)' 연주하라 지시한다. 실제 민요의 인용이 아니라, 그 정취를 살려 코른골트가 직접 만든 선율이다. 이어지는 일곱 개의 변주는 주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템포와 리듬, 음색을 바꾸며 서로 다른 성격을 드러낸다. 첫 세 변주는 빠르게 전개되고, 제4변주는 노래하듯 우아하게 흐른다. 제5변주에서 다시 활기를 끌어올린 뒤 제6변주는 차분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선다. 마지막 제7변주는 행진곡이다. 금관과 타악기가 전면에 나서며 규모를 넓히고, <로빈 후드의 모험>을 떠올리게 하는 활달한 영화적 음향으로 곡을 맺는다.

Op.42는 코른골트가 작품번호를 붙인 마지막 작품이다. 아내에게 "어릴 때부터 내 작품번호가 42에서 끝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라고 말한 일화도 전해진다. 이후 교향곡 2번을 구상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 짧은 변주곡 안에서 빈의 후기 낭만주의와 할리우드에서 단련한 영화음악의 감각이 선명하게 만나는 작품이다.

월튼 / 바이올린 협주곡
W. Walton / Violin Concerto

작곡 1938년~1939년
초연 1939년 12월 7일, 미국 클리블랜드 세버런스 홀
편성 바이올린 독주, 플루트 2(제2주자 피콜로 겸주), 오보에 2(제2주자 잉글리시 호른 겸주),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팀파니, 스네어드럼, 심벌즈, 탬버린, 실로폰,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31분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윌리엄 월튼(1902-1983)은 체계적인 작곡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옥스퍼드의 성가대와 대학에서 음악적 기반을 쌓고 독학으로 자신의 음악어법을 일궜다. 젊은 시절 아방가르드와 재즈의 감각을 흡수했고, 차츰 서정적인 선율과 날카로운 리듬, 화려한 관현악 색채를 결합한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했다. 스스로를 '서정적 정감을 지닌 고전적 작곡가'라 여겼던 그의 면모는 오늘 연주될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특히 선명하다.

이 작품은 1936년 당대 최고의 비르투오소 야샤 하이페츠의 위촉으로 시작됐다. 런던에서 월튼을 만난 하이페츠는 직접 점심을 대접하며 협주곡을 청했고,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던 연주자의 제안은 30대 작곡가에게 각별한 일이었다. 그러나 작업이 빠른 편이 아니었던 월튼은 1938년에야 본격적으로 작곡에 착수했다. 당시 연인이었던 앨리스 윔본과 함께 이탈리아 라벨로에 머물며 처음 두 악장을 구상했고, 하이페츠의 조언을 받아 독주부의 효과와 기교를 세심하게 다듬었다. 완성된 곡은 1939년 12월 하이페츠의 독주와 아르투르 로진스키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되었다.

세 악장으로 이루어진 협주곡은 월튼의 비올라 협주곡과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스케르초를 둔다. 기교는 까다롭지만 과시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명확한 선율, 강렬한 리듬, 이탈리아에서 얻은 따뜻하고 감각적인 색채가 독주 바이올린의 개성과 긴밀히 맞물린다.

I. Andante tranquillo
세 악장 가운데 가장 느긋하고 서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낮게 웅얼거리는 오케스트라 위로 바이올린이 7도 도약하며 모습을 드러내고, 악보의 지시처럼 'sognando(꿈꾸듯이)' 몽환적인 노래를 펼친다. 감미로운 선율은 점차 긴장과 격정을 품으며 여러 표정으로 변형된다. 지중해의 느긋한 공기와 불안한 움직임이 한 악장 안에서 교차한다.

II. Presto capriccioso alla napolitana
제목 그대로 나폴리풍의 변덕스러운 스케르초다. 빠른 타란텔라가 음악을 몰아가고, 하모닉스와 피치카토를 비롯한 고난도의 기교가 잇따른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월튼은 라벨로에서 타란툴라에 물린 경험을 타란텔라의 착상과 연결했다. 격렬한 춤 사이에는 애틋한 왈츠와 호른이 이끄는 칸초네풍의 선율이 끼어든다. 반복되는 소재는 악센트와 리듬의 위치를 바꾸며 익숙한 선율에 새로운 운율감을 부여한다.

III. Vivace
저음 현악기에서 시작된 리듬이 바순과 클라리넷을 거쳐 행진곡풍으로 확장되며 출발한다. 신고전주의적인 날카로움과 유연한 서정성이 번갈아 나타나고, 후반에는 제1악장의 선율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후반부의 카덴차적 구간에서는 독주 바이올린이 앞선 악장들의 주제를 회상하고, 오케스트라가 이에 응답하며 세 악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다. 날렵한 리듬과 긴 호흡의 노래, 독주 악기의 화려함을 한 작품 안에 균형 있게 담아낸 월튼 전성기의 대표작이다.

브람스 / 피아노 사중주 제1번 g단조, 작품 25(쇤베르크 관현악 편곡)
J. Brahms / Piano Quartet No.1 in g minor, Op. 25(Arr. Schönberg)

작곡 1937년(편곡), 1855년~1861년(원곡)
초연 1938년 5월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디토리엄
편성 플루트 3(제3주자 피콜로 겸주), 오보에 3(제3주자 잉글리시 호른 겸주), E♭클라리넷 1, 클라리넷 2(제2주자 베이스 클라리넷 겸주), 바순 3(제3주자 콘트라바순 겸주),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1, 팀파니, 베이스드럼, 심벌즈, 글로켄슈필, 스네어드럼, 탬버린, 트라이앵글, 실로폰, 현5부
연주시간 약 43분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Op.25는 원곡 못지않게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관현악 편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쇤베르크는 1937년 이 작품을 대편성 오케스트라용으로 작업하면서 "모든 것을 제대로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피아노의 두꺼운 화음에 묻히기 쉬운 내성과 대선율을 여러 악기군에 나누어 맡기고, 실내악 속에 잠재해 있던 교향적 음향을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멜로디와 화성, 형식은 거의 그대로 두었지만 피아노 한 대에 겹쳐 있던 음들을 목관·금관·현악의 서로 다른 음색으로 펼치면서 음악의 구조가 한층 선명해졌다.

쇤베르크는 브람스의 어법을 존중하면서도 단순한 모방에 머물지 않았다. 3관 편성의 목관과 확장된 금관, 다양한 타악기를 동원했고, E♭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 실로폰, 글로켄슈필, 스네어드럼, 탬버린, 심벌즈 등 브람스의 관현악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악기를 과감하게 사용했다. 특히 피아노의 빠른 아르페지오와 타악기적인 음형을 여러 악기에 세분해 배치하면서 각 성부의 움직임을 또렷하게 들려준다. 쇤베르크가 이 편곡을 농담처럼 '브람스의 교향곡 제5번'이라 부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원곡은 브람스가 피아노 사중주 제2번 A장조 Op.26과 비슷한 시기에 쓴 작품이다. 그는 한 장르에 몰두할 때 비슷한 작품을 짝지어 쓰곤 했는데, 두 피아노 사중주도 상보적인 한 쌍을 이룬다. 제1번은 1861년 함부르크에서 클라라 슈만의 피아노로 초연되었고, 이듬해 빈에서는 브람스 자신이 헬메스베르거 사중주단과 연주하며 빈 음악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I. Allegro

소나타 형식을 따르지만 주제적 재료가 유난히 풍부하다. 첫 주제와 둘째 주제 사이의 연결구조차 독립된 악상처럼 부각되며 여러 주제가 잇달아 등장한다. 그러나 전개부에서는 첫머리의 핵심 동기에 집중해 재료를 하나로 묶는다. 짧은 동기가 끊임없이 변형되며 새로운 음악을 낳는 방식은 훗날 쇤베르크가 브람스 음악의 핵심으로 설명한 '발전적 변주'를 잘 보여준다.

II. Intermezzo: Allegro ma non troppo

약음기를 낀 현악기의 가볍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시작한다. 쇤베르크는 원곡에서 바이올린이 이끌던 선율 일부를 관악기로 옮겨 더욱 투명한 색채를 만들었다.

III. Andante con moto

호흡이 긴 선율이 넉넉한 화성을 이루다가 중간부에서 부점 리듬의 힘찬 행진곡으로 전환된다. 이때 관악기와 현악기가 서로 응답하듯 움직이며, 실내악에서는 압축돼 있던 음향의 층위가 넓게 펼쳐진다.

IV. Rondo alla zingarese: Presto

작품의 인상을 결정짓는 악장이다. 브람스는 청년 시절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에두아르트 레메니와 연주 여행을 하며 헝가리풍 음악에 매료됐다. 빠른 리듬과 강한 악센트, 자유롭게 휘어지는 선율에 그 흔적이 선명하다. 겉으로는 춤의 에너지가 넘치지만 주제의 회귀와 변형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다. 쇤베르크는 여기서 대선율을 여러 악기로 세밀하게 분산시키고, 실로폰과 타악기를 전면에 내세워 리듬의 날을 세운다. 원곡의 음표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네 사람이 연주하던 음악을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공간으로 확장한 셈이다. 이 편곡은 브람스를 현대적으로 고쳐 쓴 것이 아니라, 악보 안에 숨어 있던 성부와 리듬, 동기의 관계를 음색으로 드러낸 작업에 가깝다.

글 | 조은아(피아니스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제832회 정기연주회



한밤의 선율

MIDNIGHT MELODY

2026. 11. 28.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바버 / 현을 위한 아다지오
S. Barber / Adagio for Strings

슈만 /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129
R. Schumann / Cello Concerto in a minor, Op. 129

림스키-코르사코프 / 셰에라자드, 작품 35
N. Rimsky-Korsakov / Scheherazade, Op. 35

지휘
잔카를로 게레로
Conductor
Giancarlo Guerrero

첼로
스티븐 이설리스
Cello
Steven Isserlis

주최/주관 KBS교향악단 | 티켓 R 100,000 S 80,000 A 50,000 B 30,000 C 10,000 | 예매 NOL ticket 1544-1555 예술의전당 1668-1352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이수연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정지수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최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상우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이재원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Matthias Wollong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악장
플루트 유지홍 수석
클라리넷 이새롬 수석
호른 John Wang 수석
팀파니 임예지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전현정 **대리**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손지수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사원** 김경오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신재영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정태훈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 만찬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하단의 공통혜택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 ('kbssoforever')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감사 **고태관**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Symphony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Cantata
김영기 변호사
김원희
매크로통상(주)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Nocturne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한문규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NH투자증권
(주)유카스 정광훈 대표

Prelude
권정숙
김연주 BCS ASSET CONSULTING 세무사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병원
박옥균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유순신 (주)유앤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유민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장희용 변호사
전희재 노무사
정선덕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최정아
(주)코스모스악기
하나은행

2026년 협찬 기업

비씨카드(주) **(주)코리아타임스** **(주)우리카드**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주)서울경제신문**	1억원 이상
(주)신한은행	3천만원 이상
엘앤티렉서스(주) **씰리코리아컴퍼니(유)** **대한소방공제회** **(주)소다**(현물협찬)	1천만원 이상
(주)광주은행	5백만원 이상
일동후디스(주) **유한킴벌리(주)** **(주)메이블** **(주)닥터맘**	임산부음악회 물품후원

Life ON Sealy

오늘의 당신을 지지합니다

씰리침대 구매문의 : 1670-2152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